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0. Vol. 39, No. 1, 25-35

**Original Article**
© 2020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eISSN 2733-4538

#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tructure of Self-concept on Social Anxiety

**Deuk-Kweon You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at affects social anxiety and verify if self-organiz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have different moderating effects in this proc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392 college students which include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organization style, self-concept clarity, stress, and social anxiety.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way interact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tress, and self-organiz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Individuals with integrative self-structures scored lower on social anxiety even when they represent 'nondisplay of imperfection' during interpersonal stress situations. Self-concept clarity showe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tress, and social anxiety.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organization, self-concept clarity, social anxiety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이 타인 앞에서 잘 처신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불안이 유발된 상황이 끝나면 그 상황과 관련된 근심도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혹은 수행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를 겪는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chlenker와 Leary (1982)는 이 과정을 동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욕구(자기제시 동기)와 그 욕구를 충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단(자기제시 기대)의 불일치 정도에 의해 사회불안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제시 동기가 극에 달해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히 드러내려는 성향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고 한다(Hewitt et al., 2003; Kim, 200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지각될 것 같은 반응에 몰두하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을 숨기려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차이는 기존의 특성 완벽주의가 실수 없이 완벽한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과 압박을 반영한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실제 완벽과 별개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과한 욕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Hewitt et al., 2003).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는 자신의 완벽함을 부각하되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두 가지 동기부여 요소가 있다. 때문에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차원의 부적응적 자기제시를 제안하였다.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하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며,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점을 공적인 상황에서 인정하기 꺼려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특성 완벽주의를 공변량으로 통제할 때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Correspondence to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Bucheon, Korea; E-mail: yhlee@catholic.ac.kr

Received Sep 11, 2019; Revised Nov 25, 2019; Accepted Dec 24, 201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18.

www.kci.go.kr

부정적 문제해결지향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sser, Flett, & Hewitt, 2010; Flett & Hewitt, 2002). Meleshko와 Alden (1993)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자기제시 특유의 방어적 성향이 사회불안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과 같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대학생 집단의 사회불안을 가장 일관되게 예측하였다(Hewitt et al., 2003). 또한, 정신과 진단을 받은 환자집단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성향은 대인관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예, 면담 참여) 전후의 인지 편향을 예측하였고(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을 매일 측정한 종단연구에서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하위 척도로 측정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일상의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ehayes & Mackinnon, 2019; Mackinnon, Battista, Sherry, & Stewart, 2014).

이처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두 요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다루고 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도 일부 있었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이 유능감을 경험할 때 사회불안을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Kang & Shin, 20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중에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만이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으며(Kim & Oh,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에 관한 자기신념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성향만을 조절한다는 결과도 있었다(Nam, 2017).

즉, 기존연구들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내용 변인(예, 유능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기개념의 내용 변인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을 측정하는 데다가 측정 항목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여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직화나 자기개념 명확성과 같은 자기개념의 구조 변인들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구조(self-structure)는 방대한 자기지식과 정보, 즉 자기개념 내용이 조직화되는 방식을 말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자기개념이 다면적이고 맥락의존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Markus & Wurf, 1987; McConnell, 2011), Showers, Limke와 Zeigler-Hill (2004)은 심리치료가 궁극적으로 자기개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Brewin (2006)도 인지치료가 자기개념의 내용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치료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자기-구조가 인출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자기개념의 구조적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개념의 구조 변인으로는 자기조직화(Showers, 1992)와 자기개념 명확성(Campbell, 1990), 자기복잡성(Linville, 1987)이 있다(Stopa, 2009). 먼저 평가적 자기조직화 모형(model of evaluative self-organization)은 사람들이 자기측면(예, 학생일 때의 나, 자녀일 때의 나)과 관련된 경험들을 다양한 범주로 조직화한다고 가정한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자기측면 범주 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 모형의 핵심특징인데, 자기조직화는 상대적으로 구획화된 자기구조 혹은 상대적으로 통합화된 자기구조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기 관련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하며(예, 친구로서의 나는 자상하고 따뜻하지만 자녀로서의 나는 무심하고 차가움), 통합화(integration)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들을 포괄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예, 사랑스럽고 따뜻하지만 부주의한 친구). Showers (2000)는 자기개념을 조직화할 때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요소를 더 중요시하면 긍정적인 개념 위주로 구획화(혹은 통합화) 방식을 구사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부정적인 개념 위주로 구획화(혹은 통합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Thomas, Showers와 Grundy (2012)는 부정적 구획화 집단이 부정적 통합화 집단보다 자기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인상관리 점수가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긍정 및 부정 구획화 집단 모두에서 회피 부인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구획화 집단의 낙관성과 바람직한 인상관리는 방어적 반응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Zeigler-Hill과 Showers (2007)는 매일 일기과제에서 구획화 양식을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후속 실험연구에서 구획화 집단은 사회적 거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예민하였고, 상대적으로 자존감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Showers와 Kling (1996)은 통합화 양식을 지닌 사람들의 회복탄력성을 관찰하였는데, 구획화 집단과 달리, 통합화 집단은 대안적 사고를 할 경우 우울기분에서의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Showers와 Kling은 통합화 방식이 구획화 방식보다 각 자기측면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를 골고루 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충분한 자기반성을 통해 자기이해와 기분조절에 유용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획화 방식은 부정적인 자기측면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부적 경험에 대한 인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정적 경험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자신의 좋은 점만 보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자기측면이 활성화되면, 구획화는 주로 자신의 부정적 측면만 인식함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 통합화 방식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심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대처가 가능하다(You & Lee, 2013).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은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 견해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내적으로도 일관되고 안정된 정도를 말한다(Campbell et al., 1996). 자기조직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신념의 범주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확신 정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기존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통제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덜 명확하고 불안정하였는데, 자기 언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기귀인하며 긍정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Wilson & Rapee, 2006). 일반인, 청소년, 주립정신병원 입원환자 집단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 간의 부적 상관은 반복 확인되고 있으며(Bigler, Neimeyer, & Brown, 2001; Krupa, 2018; Valkenburg & Peter,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완충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9). 이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타인의 인정에 의해 좌우되고 승인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며 불안해할 수 있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자기 입장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서 자신과 관련된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덜 예민해지고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Stopa, Brown, Luke와 Hirsch (2010)는 자기 구조의 세 가지 측면, 즉 자기조직화,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복잡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연구에서 자기조직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로 측정된 사회불안과 상관이 있었고, 중다회귀분석 시 자기개념 명확성은 우울과 자존감을 통제하고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두 번째 실험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구획화된 자기조직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기개념의 일관성과 확신에 관한 판단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복잡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모두에서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기개념의 구조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자기조직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의 잠재적인 유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두 변인이 사회불안에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 변인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스트레스 변인을 본 연구에 추가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직화 혹은 자기개념 명확성 변인을 각각 투입하고 3원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자기-구조 변인들 간의 조절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기조직화는 스트레스가 적을 때 자기조직화 유형에 관계 없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따라 사회불안이 증가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더라도 통합화된 자기조직화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도 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으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수행능력이나 문제해결지향 혹은 대처방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었다(Besser et al., 2010; Nam,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맥락의 영향을 받고, 사회불안도 상황에 따라 달리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인차가 대인관계 문제 뿐 아니라 수행문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사회적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 변인의 조절효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학부 및 대학원생 42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설문을 완료하지 않거나 중도에 작성을 포기한 36명을 제외하고, 392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122명(31.1%), 여자가 270명(68.9%)이었고, 평균연령은 21.86세($SD$ = 2.73)였다. 설문 작성 전, 참여자들은 임상심리학 석사과정 연구보조자에게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간략히 안내받았다.

www.kci.go.kr

## 측정도구

###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Ha (2011)는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를 한국실정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고 타당화하였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는 총 19문항으로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DC)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 (2011)의 연구에서 PSPS-K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고, 각 하위척도별로 PSP는 .88, NDP는 .75, NDC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9였고, 각 하위척도별로 PSP는 .89, NDP는 .81, NDC는 .75로 나타났다.

###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와 Clarke (1998)이 개발하고 Kim (2001)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두 20문항이며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사회적 수행 및 활동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관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4였다.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와 Clarke (1998)이 개발하고 Kim (2001)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두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평정된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Kim (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자기개념의 내적 일관성과 안정성,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하고, Kim (1998)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의 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Kim (199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 자기측면검사

Linville (1985, 1987)과 Showers (1992) 등이 자기복잡성이나 자기조직화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카드분류과제(Self-Descriptive Card-Sorting Task)를 활용하였는데, Hwang (2007)이 카드분류과제를 지필형 방식인 자기측면검사로 변용하였다.

자기측면검사는 지시문을 읽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측면들(예, 학생으로서의 나, 자녀로서의 나)을 40개 단어로 묘사하게끔 되어 있다. 단어는 긍정표현 20개(예, 다정하다)와 부정표현 20개(예, 과민하다)로 구성되어있다. 가능한 떠올릴 수 있는 자기측면들에 대해 묘사하고 나서, 각 측면들의 중요성, 긍정성, 부정성을 7점 척도에 평정한다. 카드분류과제와 마찬가지로 자기측면검사는 자기개념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변인들을 산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구획화계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구획화계수(Phi coefficient, Φ)*

구획화계수는 자기조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참여자들이 각각의 자기측면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단어빈도를 계산한 chi-square 통계치($\phi = \sqrt{(\chi^2/N)}$, $N$ = 분류에 동원된 전체 속성단어의 수)에 근거한다. 구획화계수는 0–1의 범위를 가지는데, 0은 완벽한 통합화(즉, 긍정 및 부정 속성들이 모든 자기측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를 나타내고, 1은 완벽한 구획화(즉, 각 자기측면들이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임)를 뜻한다.

###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정판

이 척도는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Chon & Kim, 1991)를 Chon, Kim과 Yi (2000)가 개정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요인은 8개인데, 이를 대인관계 스트레스(IRS)와 당면과제 스트레스(TRS)로 재분류할 수 있다. 총 50문항이고, 각 문항은 대학생들이 지난 1년동안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이 기술되어 있으며, 그 사건들에 대한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각각 4점 척도로 평정해야 한다. 문항별 점수는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곱셈으로 산출되었다. 내적 합치도는 .75–.88이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 분석방법

먼저 IBM SPSS Statistics 22.0으로 자료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스트레스, 구획화계수(혹은 자기개념 명확성) 하위변인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3.3 (Hayes, 2019)을 활용하였다.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수행불안은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사회공포증 척도(SPS)로, 상호작용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로 측정하였다. 분석 전, 주효과와 조절효과 해석을 위해 예측변인들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을 ±1SD 기준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 간 상관분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조직화, 자기개념 명확성, 스트레스, 사회불안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 분석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구획화계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만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14$, $p < .01$. 구획화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직화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직화 방식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PROCESS Model 3; Hayes, 2019). 분석결과(Table 2),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 < .001$), 대인관계 스트레스($p < .001$), 구획화계수($p < .05$)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구획화계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구획화계수의 2원상호작용 효과는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대인관계 스트레스, 구획화계수의 3원상호작용 효과는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p < .05$.

사회불안에 대한 3원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울기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Figure 1),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을 때 구획화계수 +1SD집단($b = 1.23$)과 -1SD집단($b = .97$)에 따

**Table 1.** *Correlation between Scales (N = 392)*

|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 | | Stress | | Self-Structure | | Social Anxiety | |
|---|---|---|---|---|---|---|---|---|---|
| | 1. PSP | 2. NDP | 3. NDC | 4. IRS | 5. TRS | 6. SCC | 7. Phi | 8. SPS | 9. SIAS |
| 1 | | | | | | | | | |
| 2 | .49** | | | | | | | | |
| 3 | .47** | .41** | | | | | | | |
| 4 | .21** | .17** | .13** | | | | | | |
| 5 | .19** | .23** | .17** | .58** | | | | | |
| 6 | -.25** | -.29** | -.27** | -.33** | -.44** | | | | |
| 7 | .05 | .09 | .07 | .05 | .07 | -.05 | | | |
| 8 | .35** | .38** | .30** | .35** | .36** | -.48** | .08 | | |
| 9 | .25** | .39** | .30** | .34** | .40** | -.49** | .14** | .78** | |
| Mean | 24.61 | 22.41 | 18.03 | 18.15 | 63.50 | 23.56 | .64 | 28.06 | 32.47 |
| *SD* | 8.62 | 4.89 | 5.70 | 20.49 | 42.29 | 8.06 | .29 | 15.80 | 14.76 |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IR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TRS = Task-Related Stress; SCC = Self-Concept Clarity; Phi = Phi coefficient; SPS = Social Phobia;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p < .01$.

**Table 2.** *Regression Result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Mo: Phi)*

| | *b* | *t* | | *b* | *t* | | *b* | *t* |
|---|---|---|---|---|---|---|---|---|
| PSP (A) | 0.31 | 3.82*** | NDP (A) | 1.02 | 7.37*** | NDC (A) | 0.62 | 5.08*** |
| IRS (B) | 0.22 | 5.87*** | IRS (B) | 0.20 | 6.04*** | IRS (B) | 0.21 | 6.16*** |
| Phi (C) | 5.77 | 2.39* | Phi (C) | 5.21 | 2.27* | Phi (C) | 5.10 | 2.17* |
| A × B | 0.00 | -0.19 | A × B | 0.00 | -0.75 | A × B | 0.00 | 0.51 |
| A × C | 0.15 | 0.55 | A × C | -0.30 | -0.65 | A × C | -0.12 | -0.27 |
| B × C | -0.19 | -1.67 | B × C | -0.07 | -0.72 | B × C | -0.21 | -1.91 |
| A × B × C | 0.00 | 0.37 | A × B × C | -0.04 | -2.03* | A × B × C | 0.03 | 1.42 |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IR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Phi = Phi coefficient.
$^{*}p < .05$. $^{***}p < .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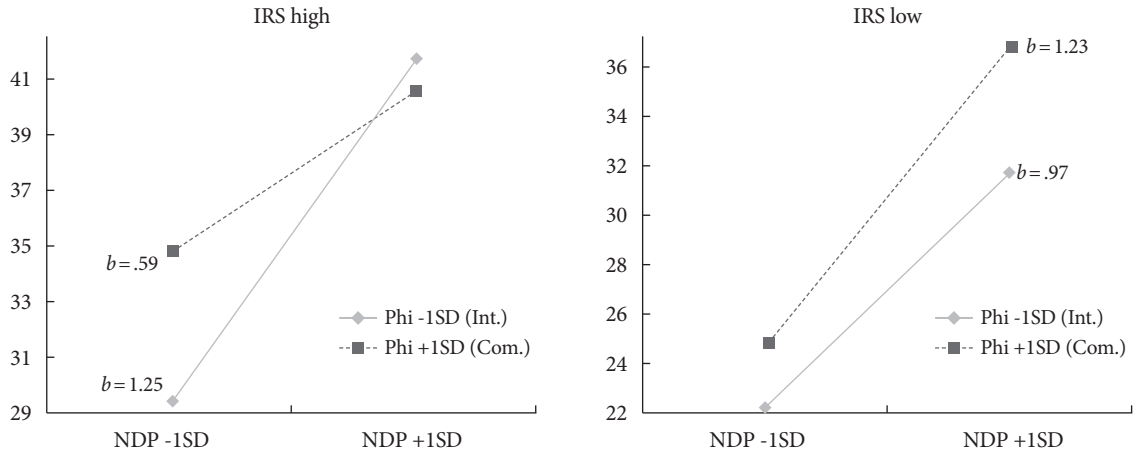


**Figure 1.** *3-way interaction effect of NDP, IRS, Phi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Note.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IR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Phi = Phi coefficient; Int. = Integration; Com. = Compartmentalization.*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Mo: SCC)*

| | *b* | *t* | | *b* | *t* | | *b* | *t* |
|---|---|---|---|---|---|---|---|---|
| PSP (A) | 0.60 | 4.02*** | NDP (A) | 1.48 | 5.51*** | NDC (A) | 0.80 | 3.55*** |
| IRS (B) | 0.25 | 3.48*** | IRS (B) | 0.25 | 3.63*** | IRS (B) | 0.25 | 3.52*** |
| SCC (C) | -1.49 | -9.18*** | SCC (C) | -1.27 | -7.81*** | SCC (C) | -1.41 | -8.65*** |
| A × B | 0.01 | -0.62 | A × B | -0.04 | -2.50* | A × B | 0.01 | 0.49 |
| A × C | -0.01 | -0.34 | A × C | -0.07 | -2.16* | A × C | 0.02 | 0.66 |
| B × C | -0.01 | -1.15 | B × C | 0.00 | -0.54 | B × C | 0.00 | -0.14 |
| A × B × C | 0.00 | 0.34 | A × B × C | 0.00 | -1.41 | A × B × C | 0.00 | -1.40 |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IR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SCC = Self-Concept Clarity.
*$p < .05$. ***$p < .001$.

른 기울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을 때 구획화계수 +1SD집단($b = .59$)과 -1SD집단($b = 1.25$)에 따른 기울기 차이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z = -1.81$, $p < .10$.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을 때에는 자기조직화 방식에 관계없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의 사회불안이 더 낮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의 사회불안이 낮았고, 특히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 중에서 구획화(Phi +1SD)보다 통합화(Phi -1SD) 양식을 지닌 사람의 사회불안이 더 낮았다.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PROCESS Model 3; Hayes, 2019). 분석결과(Table 3),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 < .001$), 대인관계 스트레스($p < .001$), 자기개념 명확성($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2원상호작용 효과는 사회불안을 대부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기개념 명확성의 3원상호작용 효과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직화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사회적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직화 방식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PROCESS Model 3; Hayes, 2019). 그 결과(Table 4),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 < .001$)와 당면과제 스트레스($p < .001$)의 주효과는 유의하였고, 구획화계수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구획화계수의 2원상호작용 효과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 통제되었을 때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Social Performance Anxiety (Mo: Phi)*

| | *b* | *t* | | *b* | *t* | | *b* | *t* |
|---|---|---|---|---|---|---|---|---|
| PSP (A) | 0.52 | 6.19*** | NDP (A) | 1.00 | 6.53*** | NDC (A) | 0.69 | 5.23*** |
| TRS (B) | 0.12 | 6.73*** | TRS (B) | 0.11 | 5.99*** | TRS (B) | 0.12 | 6.64*** |
| Phi (C) | 2.17 | 0.87 | Phi (C) | 2.50 | 0.96 | Phi (C) | 2.61 | 1.03 |
| A×B | 0.00 | -0.36 | A×B | 0.00 | 0.84 | A×B | 0.00 | 1.33 |
| A×C | 0.40 | 1.42 | A×C | 0.33 | 0.62 | A×C | -0.46 | -0.98 |
| B×C | -0.13 | -2.18* | B×C | -0.08 | -1.25 | B×C | -0.11 | -1.74 |
| A×B×C | 0.00 | 0.27 | A×B×C | -0.01 | -0.64 | A×B×C | -0.01 | -1.09 |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TRS = Task-Related Stress; Phi = Phi coefficient.
*$p$ < .05. ***$p$ < .001.

**Table 5.** *Regression Results of Social Performance Anxiety (Mo: SCC)*

| | *b* | *t* | | *b* | *t* | | *b* | *t* |
|---|---|---|---|---|---|---|---|---|
| PSP (A) | 0.38 | 4.38*** | NDP (A) | 0.73 | 4.72*** | NDC (A) | 0.39 | 2.88** |
| TRS (B) | 0.05 | 2.46* | TRS (B) | 0.04 | 2.23* | TRS (B) | 0.05 | 2.52* |
| SCC (C) | -0.71 | -7.44*** | SCC (C) | -0.66 | -6.77*** | SCC (C) | -0.71 | -7.20*** |
| A×B | 0.00 | -1.47 | A×B | 0.00 | -0.78 | A×B | 0.00 | 0.10 |
| A×C | 0.00 | -0.29 | A×C | -0.02 | -1.22 | A×C | 0.01 | 0.52 |
| B×C | 0.00 | -1.53 | B×C | 0.00 | -0.48 | B×C | 0.00 | -0.88 |
| A×B×C | 0.00 | -1.02 | A×B×C | 0.00 | -1.56 | A×B×C | 0.00 | -1.36 |

*Note.* PSP =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NDP =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TRS = Task-Related Stress; SCC = Self-Concept Clarity.
*$p$ < .05. **$p$ < .01. ***$p$ < .001.

명하였으나, $p$ < .05, 그 이외 2원상호작용 효과는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당면과제 스트레스, 구획화계수의 3원상호작용 효과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사회적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PROCESS Model 3; Hayes, 2019). 그 결과(Table 5),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 < .01)와 당면과제 스트레스($p$ < .05), 자기개념 명확성($p$ < .0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2원상호작용 효과는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당면과제 스트레스, 자기개념 명확성의 3원상호작용 효과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된 관심사는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자기-구조 변인이 조절하는지 여부였다. 부가적으로, 대인관계 혹은 수행문제와 같은 스트레스 유형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기조직화의 주효과는 사회불안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하였고, 구획화된 방식으로 자기개념을 조직화하면 사회불안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직화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을 때에는 자기조직화 방식에 관계없이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의 사회불안이 더 낮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도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의 사회불안이 낮았는데,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저집단 중에서 구획화보다 통합화 양식을 지닌 사람의 사회

www.kci.go.kr

불안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의 유지와 발생에 위험요인이며, 그중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이 사회불안을 가장 일관되게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15; Jain & Sudhir, 2010; Mackinnon et al., 2014).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장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수나 어설픈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애쓰는데, 본 연구결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을 줄이고 통합화 양식을 구사한다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조절효과 방향은 당초 가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원래는 스트레스 수준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모두 높더라도, 통합화된 자기조직화를 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통합적 사고가 긍정과 부정 평가를 가감 없이 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 심리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일 수 있다(Showers, 1992, 2000).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통합적 사고는 일시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상황 맥락이나 시간차 등을 고려해 이 과정을 분석한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양상이나 취약성을 더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불안과 각각 부적 상관이 있었고, 회귀분석 시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도 확인되었다.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스트레스가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자기 견해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일관된다고 여길수록 사회불안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rupa (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도 확인되었으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시 정보처리편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개념 및 측정 문제와 관련된다. Stinson, Wood와 Doxey (2008)는 기존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단일차원으로 설명되는 것과 달리, 자기측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명확성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명확성 수준은 자기측면의 모호성이나 관찰가능성, 통제가능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uerrettaz와 Arkin (2016)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구조를 나타내는 주요변인이나, 주관적 신념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부분 1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Self-Concept Clarity Scale; Campbell et al., 1996)로 단순하게 측정되는데, 이 방식으로 측정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다고 여기는 설문참여자의 주관적 신념 정도를 알 수 있지만, 실제 자기개념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조직화는 자기개념이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카드분류방식으로 측정된다. 이 방식은 연구참여자가 긍정과 부정 단어가 적힌 각각의 카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특성(예, 학생일 때의 나, 자녀로서의 나)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과제를 반복 수행하면, 비교적 규칙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를 분류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실제 자기개념 일관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드분류과제는 안면타당도가 낮아 참여자가 특정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과제수행이 가능해서 실제 자기개념 안정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는 구성개념과 측정방식의 문제로 인해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대신 자기조직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 변인들의 관계방향이나 강도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라 조절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인차가 스트레스 유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당면과제 스트레스,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는 사회불안을 예측하였으나, 자기조직화의 주효과는 사회불안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당면과제 스트레스, 자기조직화 혹은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3원상호작용 효과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사회지향성(Sociotropy)-자율지향성(Autonomy) 성격 취약성 이론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개념상 사회지향성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유사하고 자율지향성은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은 전반적 불안과 관련이 있었고 자율지향성은 불안보다 우울과 관련이 더 있었다(Clark, Beck, & Stewart, 1990; Fresco, Sampson, Craighead, & Koons, 2001). 따라서 관련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를 유추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견주어 봤을 때,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사회불안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인차를 부각시키기에 설명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 이 해석을 일반화하기 위해 추후 연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구는 과제나 관계 자극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방어적 요소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며, 은폐 성향이 있더라도 통합화된 방식으로 자기개념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합화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 양식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인식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보인다(You & Lee, 2013). 또한, 자기은폐 행동을 적게 할 때 통합화 양식이 사회불안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입 초기의 치료적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은 실제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흠잡을 데 없는 인상을 주고 싶지만, 혹여 자신의 부족한 면모가 말과 행동을 통해 들키게 될 까봐 노심초사할 수 있다. 남에게 그저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만, 알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것이다(Hewitt et al., 2003; Schlenker & Leary, 1982; Winnicott, 1960).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감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인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감시하며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Clark, 2005). 치료자는 이들과의 작업을 통해,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외면 한다든지 혹은 애써 바람직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서도, 좋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측면검사의 타당성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howers (1992)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직접 카드를 분류해야 하는 개인용 과제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지필형 검사로 변용한 것을 가지고 집단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카드분류과제 특성을 비교적 유지하면서도 표준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집단 실시가 용이하며 대규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자기측면검사와 카드분류과제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확인된 바 있으나(Hwang, 2007; Kim, Y. H. 2001; Morgan & Janoff-Bulman, 1994), 본 연구에서 자기측면검사로 측정된 구획화계수와 다른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검사는 다른 자기보고식 척도보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작성 시 참여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기측면검사에 조금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카드분류과제와 자기측면검사를 동일 참여자에게 모두 실시하여 두 검사 간의 관계를 반복 분석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참여자의 자기보고 방식에 기초한다. 자기-구조는 본인 스스로 탐지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조직화 혹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Guerrettaz & Arkin, 2016). 실험기법 등의 다양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면(Stopa et al., 2010), 자기-구조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조절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만약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이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자기제시노력, 불완전함은폐 노력과 같이 구사할 수 있는 자기제시방식에 차이가 있고(Besser et al., 2010),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구획화에서 통합화로 자기조직화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면(Showers & Zeigler-Hill, 2007),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변인들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approach*. New York, NY: Basic Books.

Besser, A., Flett, G. L., & Hewitt, P. L. (2010).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rait perfectionism i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 2121-2154.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Brewin, C. R. (2006). Understanding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retrieval competition accou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765-784.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Choi, H. J. (2019).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lonel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www.kci.go.kr

Chon, K., & Kim, K. (1991).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137-158.

Chon, K., Kim, K., & Yi, J.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316-335.

Clark, D. A., Beck, A. T., & Stewart, B. (1990). Cognitive specificity and positive-negative affectivity: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views 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148-155.

Clark, D. M. (2005). A cognitive perspective on social phobia. In W. Crozier & L. E. Alden (Eds.), *The essenti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for clinicians* (pp. 193-218). New York, NY: Wiley.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resco, D. M., Sampson, W. S., Craighead, L. W., & Koons, A. N. (2001). The relationship of sociotropy and autonomy to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5*, 17-31.

Guerrettaz, J., & Arkin, R. M. (2016). Distinguishing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aspects of self-concept clarit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 219-230.

Ha, J. H.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 1211-1230.

Hayes, A. F. (2019).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3.3) [Computer software]. Retrieved from http://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303-1325.

Hewitt, P. L., Habke, A. M., Lee-Bag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1*, 93-122.

Hewitt, P. L., Mikail, S. F., Flett, G. L., Tasca, G. A., Flynn, C. A., Deng, X., . . . Chen, C. (2015). Psychodynamic/interpersonal group psychotherapy for perfectionism: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short-term treatment. *Psychotherapy, 52*, 205-217.

Hwang, S. (2007).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Jain, M., & Sudhir, P. M. (2010).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social phobia. *Asian Journal of Psychiatry, 3*, 216-221.

Kang, B., & Shin, H. (2015). Moderating effects of the need for compet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anxiety. *Educational Research, 38*, 77-95.

Kehayes, I. L., & Mackinnon, S. P. (2019).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anxiety using daily diary methods: A replication. *Collabra: Psychology, 5*, 1-14.

Kim, D. (1998). *Self-concept clarity in Korea: Personality, self-consciousness and behavioral correl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D., & Oh, K. (2017).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social anx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56-63.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N. J. (2004). Effects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evaluation on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677-695.

Kim, Y. H. (2001). *Self-concept and self-complexity of worr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rupa, L. M. (2018). *The impa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alifornia.

Linvi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Linvi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Mackinnon, S. P., Battista, S. R., Sherry, S. B., & Stewart, S. H. (2014).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redicts social anxiety using daily diary meth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43-148.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McConnell, A. R. (2011). The multiple self-aspects framework: Self-concept representation and its implic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 3-27.

Meleshko, K., & Alden, L. (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00-1009.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complexity: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3

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63-85.

Nam, Y.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anxiety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Showers, C. (1992).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36-1049.

Showers, C. J. (2000). Self-organization in emotional contexts. In J. P. Forgas (Ed.), *Feeling and thinking: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gnition* (pp. 283-30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owers, C. J., & Kling, K. C. (1996). Organization of self-knowledge: Implications for recovery from sa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78-590.

Showers, C. J., Limke, A., & Zeigler-Hill, V. (2004). Self-structure and self-change: Applications to psychological treatment. *Behavior Therapy, 35*, 167-184.

Showers, C. J., & Zeigler-Hill, V. (2007). Compartmentalization and integration: The evaluative organization of contextualized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75*, 1181-1204.

Stinson, D. A., Wood, J. V., & Doxey, J. R. (2008). In search of clarity: Self-esteem and domains of confidence and conf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541-1555.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 48-54.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955-965.

Thomas, J. S., Showers, C. J., & Grundy, C. S. (2012). [Threat, affirmation, and compartmentalization]. Unpublished raw data.

Valkenburg, P. M., & Peter, J. (2008).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consequences for social competence and self-concept unity. *Communication Research, 35*, 208-231.

Wilson, J. K., & Rapee, R. M. (2006). Self-concept certain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13-136.

Winnicott, D. W. (1960). Ego distortion in terms of true and false self. In D. W. Winnicott (Ed.),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pp. 140-152).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You, D. K., & Lee, Y. H. (2013). The effect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and self-organization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259-276.

Zeigler-Hill, V., & Showers, C. J. (2007). Self-structure and self-esteem stability: The hidden vulnerability of compartment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43-159.

**국문초록**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의 구조적 특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득권·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구조와 관련된 자기조직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각각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대학생 392명에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조직화 양식, 자기개념 명확성, 스트레스, 사회불안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스트레스, 자기조직화 하위 변인들의 3원상호작용 효과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성향을 보이더라도 통합적으로 자기개념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의 임상적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조직화,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불안

www.kci.go.kr